

“생전예수재, 무형문화재로 가치 충분”

한국정토학회, 조계사와 ‘무형문화유산으로의 생전예수재’ 학술대회

“봄에 뿌린 한 알의 씨앗은 가을에 가서 천만 개의 씨를 맺는다. 예수재를 지낸 공덕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정토경>

수륙재, 영산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의례인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에 대해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생전예수재란 ‘생전에 미리(豫) 닦는(修) 재(齋)’ 의식으로, 죽은 뒤에 실천할 불사를 살아 있을 때 미리 닦아 사후 명복을 빌기 위한 불교 의식이다.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윤식 교수도 ‘예수재의 의례와 그 의미’의 기조강연에서 “예수재는 사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불교만의 생사관인 시왕사상이 반영된 의례”라며 이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함을 강조했다.

이성은 동국대 겸임교수는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에서 “10세기 경부터 시왕사상에 입각한 사후 칠집재나 명부시왕에 권공하여 명복을 비는 신앙이 발달했다. 현재 생전예수재가 일상 예수로 의미가 축소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산재와 수륙재 등 종합의례들이 재정리되고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울장연구회, ‘십선계와 보살계’ 의미 고찰

조계종 계단위원회 산하 울장연구회(회장 무관)는 5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십선계와 보살계’를 주제로 제3회 계율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영축총림 통도사 울주 해남 스님은 “십선계와 보살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삼업(三業)을 다스리기 위한 십선계의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가르친다”며 “하지만 보살계는 근본계로서 범계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려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최초로 이 계를 결정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십선계는 우리들의 몸가짐과 말씨,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도록 가르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테라바다 계통의 계와 대승계의 중간에서 삼업을 풀고 두 다스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학, <한국불교사연구> 6호 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한국불교사연구’ 6호를 펴냈다.

이번 호에는 ‘임란 호란 전후의 불교상과 사회상’ 기획논문으로 이이정철 국학진흥원 교수의 ‘광해군 대 경기선해법 성립과 확대 요구’ 조영호 선리연구원 연구원의 ‘광해군·인조 연간 승역(僧役)의 실제’ △원영상 원광대 교수의 ‘선조왕손 일연상인에 대한 연구’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조선 후기 고승의 비석 건립과 문집 간행’ 등이 실렸다.

‘분황 원효와 동아시아 유교사상의 만남’을 주제로 한 특집논문으로는 △이유진 동국대 외래교수의 ‘분황 원효와 회암 주희’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의 ‘원효와 왕양명의 사상적 문제의식과 그 유사성’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분황 원효와 퇴계 이황의 만남과 대화’ △김경호 전남대 HK교수의 ‘율곡 이이의 불교적 사유방식’ △방인 경북대 철학과 교수의 ‘원효와 다산의 철학사상 비교’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중국불교판화전집>에 한국판화 100점 실려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5월 13일 베이징 고궁박물관 도서관장이며 중국 판화의 권위자인 원리엔시(翁連溪)가 주관한 <중국불교판화전집>에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한 중국판화 100여점이 수록됐다.



cm인 대형이다. 전집은 한화 2천만원에 육박하는 고판화 사상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출판으로 꼽힌다.

이에 수록된 소장품으로는 명나라 헌종(憲宗) 성화(成化) 13년(1477) 판각 불경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과 청나라 때 판각한 대세지보살판화가 있다.

한편, 이 전집은 중국국가출판금고를 바탕으로 10년간의 편집기간을 거쳐 만든 대작으로, 크기가 가로 27.0, 세로 37.5

노덕현 기자

“불교 대중화 길, 영화 속에”

정재형 동국대 교수, ‘영화와 불교의 만남’ 학술세미나서

“불교는 불교영화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영화 장르 속에 불교사상을 담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는데 영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화두를 던졌다.

정 교수는 먼저 ‘달마야 놀자’를 비롯한 대중영화를 언급하며 “불교영화를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로 한정짓지 말고, 적극적인 해석으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불교사상을 영화적으로 녹여내는 기법이 부족하다. 사실 영화는 가장 불교적인 이야기 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예로 든 ‘달마야놀자’는 조직폭력배들이 사찰로 피신하며 겪게되는 내용을 담은 코미디 영화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영화 속에서 불교를 모티브로 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전통적인 불교영화지만 그 내부에는 대중불교와 소승불교 각각의 특징이 있다. 전통적으로 불교영화라고 평가받는 영화들 또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세분화해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차차석 불교문예연구소 소장은 대중과 함께 소통한다는 점에서 영화와 불교는 같은 방향성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차 소장은 “불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대중성이며 이는 영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70주년 기념 한중일 천태수행 조명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기념해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最澄大師) △권기중 동국대 명예교수의 ‘소백산 구인사와 상월원각대조사’ △장평애이 중국인민대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 소장의 ‘고려 의통(義通)과 송초(宋初) 천태종의 증흥’ △다케가쿠모 일본 연역사 말사 구법사 주지의 ‘엔라쿠지(延曆寺)의 수행과 문화’ △인천 황룡사 주지 세운 스님의 ‘구인사의 수행 전통과 문화’ 등이 발표된다.

‘한·중·일 3국 천태종 총본산의 개산(開山)과 수행종풍’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쉬스치 중국 국청사 천태종불학원 교수의 ‘천태산 국청사와 천태지자대사’ △구와다니 유엔 일본 예선학원 학감의 ‘히에이잔(比叡山) 엔라쿠지(延曆寺)와 사이초대

(02)3460-5226~8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충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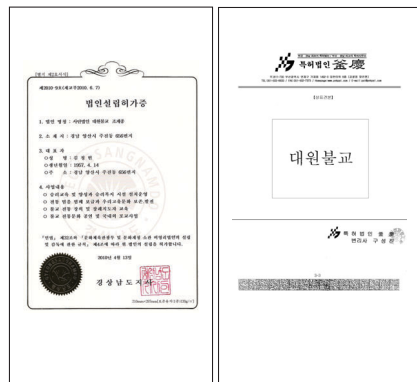
종 정 정 산 석 청 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조계종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승정원	중앙종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위원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무경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장 석원정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총회회장 석덕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실산	호법원장 석원명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감찰원장 석법현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사정원장 석법경 교육원 교육원장 석철오
교구총무원		부산 제2 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마산총무원장 석법경 강서총무원장 석해륜	
총무원		중앙위원회			
총무원장 석해오 사무총장 석해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운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근오 의전부장 석명오 바우회회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도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우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정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청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충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화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충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